

동적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체계와의 관련성 연구

-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기초하여 -

Family Perception of Adolescence Through the Kinetic Family Drawing(KFD), And Relation with Family System

- On the basis of Minuchin's Structural Family Therapy Theory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초빙교수 이 미 옥

Daegu Haany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Invited Professor : Lee, Mi Ok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mily perception of adolescence through the Kinetic Family Drawing (KFD), and to explore its relation with the family system. The Kinetic Family Drawing (KFD) and Family System Diagnosis Scale (FSDS) were administered to 356 adolescent children.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KFD family adaptability variables of boys' KFD and the flexibility and rigidity variables of the FSDS in the family relationship. For example, That is; for sons', it means that if there is a greater the satisfaction for their family in their drawings, then the family relationship will be more flexible. Especially with the son's KFD, there was an indication that if there is a greater the activity level of the self, then he has more flexibility in his family relationship.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FD family hierarchy variables of girls' KFD and the parent coalition · cross-generational triads variable of the FSDS. For girls' KF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when there is a greater the distance between the father figure and the child figure, the cross-generational triads are greater.

주제어(Key Words): 가족체계(Family System), 가족 적응(family adaptability), 가족 위계질서(family hierarchy),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인간의 최초의 사회적 환경은 가족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가족원에게 표현하고, 가족원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으나 최근의 경향은 가족 체계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가족체계는 가족 성원들로 이루어진 하위체계를 포함하며, 하위체계 역시 가족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성원의 역기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역기능으로 이해되며, 성원은 단지 “가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부적응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가족체계와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체계론적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은 가족구조와 가족 구성원의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며, 특히 하위체계의 개념이 명확하고 단순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이기 때문에 가족치료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적인 모델 중의 하나가 되었다(송성자, 1996; Minuchin, S., Roseman, B. & Baker, L., 1978). 특히 대부분의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가족 단위로 생각하는 가족 중심적인 한국인의 의식과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사회에서 Minuchin의 이론은 한국 가정의 가족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인식되어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임상가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Minuchin의 이론이 한국의 문제가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김미경, 1987; 김효남, 1984; 김효영, 1989; 배은경, 1986; 이준문, 1997; 이지수, 1993; 최순직, 1986; 한인영, 1979). 따라서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기초하여 가족원의 상호작용 양상을 진단해 보는 것은 보다 나은 가족관계의 발전과 자녀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가족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성인의 주된 역할이 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세대간의 가족관계에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때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부모세대는 중년기에 접어들고, 조부모 세대는 고령화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변화는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역할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서적 불안정과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변화하고 독립과 의존의 욕구를 모두 수반하는 심리적 불안정상태가 지속되지만 그들의 부정적 감정이나 새로운 비판적 관점을 말로 표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말로 표현되고 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청소년 자신의 죄의식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적가족화 검사법을 사용한 이유도 이러한 과도기적 심리과정에 있는 자녀가 의식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가족학 분야에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식 척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언어적인 그림에 의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림을 통해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동

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가 있는데, 이 검사는 가족성원에게 운동성을 부여하도록 하여 그 운동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내의 역동성을 알아봄으로써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행동이나 반응으로서의 태도, 감정이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Di Leo, 1973). 따라서 동적 가족화 검사는 동적가족화를 그리는 사람 자신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생활 태도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족성원 개인의 정서적인 면을 이해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동적가족화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동적가족화에 대한 개인의 반응특성을 다루었으며, 가족역동과 동적가족화를 관련시킨 연구로는 몇 편에 불과하다(신순자, 1996; 이영석, 1994; 정채영, 1999). 외국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동적가족화의 객관적인 점수화 체계를 시도하였으며(Burns & Kaufman, 1972; McPhee, 1975; O'Brian & Patton, 1974) 동적가족화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기초하여 가족 적응·가족 위계질서와 동적가족화를 관련시킨 체점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족체계의 차원 중에서 가족 적응·가족 위계질서의 하위개념과 동적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위계질서 변인 사이

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 1) 가족 적응(family adaptability):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 변화와 적응할 수 있는 가족의 재구조화 능력을 말한다.
- 2) 가족 위계질서(family hierarchy): 가족체계 내에서 권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의미한다.
- 3)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으로 막대기나 만화 같은 그림이 아닌 완전한 형태의 그림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과 주요개념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은 사회적 체계로서의 가족에 대한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가족은 가족내부와 외부의 상황 속에서 움직이며, 세 개의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구조는 변화하고 있는 개방된 사회 문화적 체계이다. 둘째, 가족은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셋째, 가족은 가족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성장과정을 유지하고 좀 더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체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조직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원리와 특성을 지닌 가족 기능에 대한 구조적 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 가족구조의 이해와 가족구조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구조적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경계(family boundary), 가족 적응(family adaptability), 가족 위계질서(family hierarchy), 가족 하위체계(family

subsystem)의 구조적 과정이 있다. 이러한 개념 중 가족 적응과 가족 위계질서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이므로 가족 적응과 가족 위계질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

1) 가족 적응(family adaptability)

가족의 적응은 가족구조의 융통성, 변화가능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적응 과정은 권력구조, 역할기능, 규칙,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가족체계와 관련이 있다. 각 가족성원들, 하위체계와 전체가족은 가족생활주기와 각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르는 성장과 변화에서 야기되는 내적인 압력을 받고, 가족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적응을 요구하는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의 압력을 받는다. 가족의 내적·외적 압력에 대한 반응은 다른 가족성원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가족체계는 유지되고 성장한다.

적응에 대한 Minuchin(1974)의 개념은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한 변화와 적응에 대한 가족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체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4가지 원인, 즉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가족 외부 세력과 접촉할 때, 가족성원 전체가 가족 외부 세력과 접촉할 때, 가족의 발달 단계상의 과도기, 가족이 갖고 있는 특유한 문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여 가족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은 시간의 경과와 발달단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가족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적절하게 기능하여 온 가족도 이전의 발달단계에 집착함으로써 발달상의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가족구조는 변화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스트레스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의 능력은 가족의 내·외적 상황이 재구조화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상호교류 유형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상호교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위체계의 영역이 분명하고 안정되어야 하지만 환경이 변할 때 다시 제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가족은 재구조화 하면서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적응하여야 한다. 만일 가

족이 너무 민감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경우 역기능적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가족 위계질서(family hierarchy)

가족 위계질서는 가족체계 내에서 권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부모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낮은 위치를 차지할 때 가족체계는 가장 잘 기능한다. 이러한 가족에서 부모는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일에 대해 서로 지지하며, 자녀에게 필요한 지도, 양육과 통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될 경우 세대 차이에 따른 위계질서는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부부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는 부모-자녀 연합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가족의 규칙을 정하고 부모의 지시를 무시하여 부모보다 더 큰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2. 동적가족화

동적가족화(KFD: Kinetic Family Drawing)는 가족화(Drawing A Family)에 움직임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화이다. Burns and Kaufman(1970)에 의해 발전된 동적가족화는 개인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더욱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권기덕 외 1993). 동적가족화는 아동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각 인물들에게 움직임을 도입했다. 아동에게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라고 요구하며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 활동적인 그림에 움직임을 첨가하는 것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관련된 측면과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아동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Burns and Kaufman(1972)은 부분적으로 Freud 학설에 기초하여, 12년 동안 사례-연구법을 통해 10,000명이 넘는 환자의 그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동적가족화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인 활동내용, 스타일, 상징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지침서를 출판하였다. Burns와 Kaufman(1972)은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각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팔을 더 길게 늘여서 그린 경우, 지배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린 경우, 양가감정을 나타내는 지우기를 한 경우, 그 인물과의 갈등을 나타내는 검사지 뒷면에 그린 인물, 위협하게 매달려 있게 그린 경우, 신체부위를 생략하여 그린 경우, 어떤 인물을 생략하고 그리지 않은 경우, 모습을 회전해서 그린 경우, 눈을 피카소의 그림같이 그린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활동내용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에너지의 흐름과 가족의 전체적 역동성을 알 수 있다. 경쟁시에는 높은 강도의 에너지가 있으며,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앉아 있는 표현은 낮은 강도의 에너지 수준이다. 에너지는 경쟁을 나타내는 공, 따뜻함을 나타내는 불, 통제를 나타내는 전기, 갈등을 나타내는 "X"자 모양과 같은 그림으로 대상에게 그려지고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양식은 구획나누기, 포위하기, 밀선 긋기, 어떤 특정 인물 아래에만 밀선 긋기, 외형만 그리거나 검사지 테두리를 따라 그리기, 검사지 윗 부분에 선긋기, 접어서 구획나누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불안, 소외, 갈등, 방어, 불안정에 대한 정서를 나타낸다.

상징은 비, 자전거, 침대, 물 그리고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에 대한 해석은 아동의 가족 상황, 발달수준, 문화적 배경의 참조체계 하에서 "개인의 전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동적가족화를 다룬 세 번째 책에서 Burns(1982)는 동적가족화 해석에 대한 새로운 특징과 함께 동적가족화의 연구와 적용을 강조하였다. 이 책은 행동, 인물상의 특성, 위치, 거리, 장애물, 스타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Like-To-Live-In-Family)와 같은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포함한 80개의 변인을 동적가족화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Burns와 Kaufman(1970, 1972)의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반응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Gersten

(1978)과 Harris(1978)는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한 표준화된 접근의 부족, 이론적인 틀과 해석을 위한 진단적 작업을 지도하는 설명의 부족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Myers(1978), O'Brien and Patton(1974)도 Burns and Kaufman(1972)의 책에서 규범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상 모임에서는 동적가족화의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rnes(1972)는 광범위한 준거체제의 한 부분으로 이용할 때, 임상 장면에서 동적가족화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Sobel and Sobel(1976)은 아동청소년 심리학자들이 동적가족화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을 관찰하였다. 동적가족화의 대중성은 동적가족화의 타당성(Cummings, 1980), 동적가족화의 신속성과 수행의 용이함(Mostkoff & Lazarus, 1983)에 기인하며, 정서장애 아동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가족 역동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데 기여하였다.

3. 구조적 가족 개념과 동적가족화

구조적 이론에 대한 4가지 개념 중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가족 적응, 가족 위계질서에 따른 동적가족화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1) 가족 적응

가족 적응은 인물상 사이의 거리, 선 구분, 성적 특성(sexual characteristic), 인물상의 행위수준,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평가된다. 인물상 사이의 거리는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것으로 청소년 발달단계 동안 융통성과 경직성에 대한 가족화를 평가한다. Minuchin(1974)은 융통성이 있는 가족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족 적응력을 변화시키는 반면, 경직된 가족은 아동의 초기 발달수준과 관련된 패턴을 고수한다고 하였다. Schwartz(1981)는 융통성이 있는 가족이 그린 그림에서는 청소년상과 부모상 사이의 거리가 더 넓어지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선 구분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을 고

립시키며, 중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두려움, 거부,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회피, 철회를 나타낸다(Burns & Kaufman, 1970, 1972; Kwiatkowska, 1967, 1978; Reynolds, 1978; Stawar & Stawar, 1987).

Schwartz(1981)는 청소년의 새로운 발달 과업에 따른 가족 융통성이 동적가족화의 성적인 특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융통성이 있는 가족이 그린 그림은 옷, 머리 스타일, 명확한 2차적 성 특징, 성적인 상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성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 적응력이 있는 가족구조를 보였으며 경직된 가족의 인물상은 성적인 특성이 적었다고 하였다.

동적가족화는 각 인물상의 행위수준을 강조한다. 아버지상·어머니상의 행위수준이 아동의 정서적 적응을 파악하는데 신뢰할만한 채점 척도라고 언급한 연구들이 있다(Cummings, 1980; Ledesma, 1979; McGregor, 1978; O'Brien & Patton, 1974; Thompson, 1975). Osorio-Braña(1996)는 아들의 그림에서 아버지상의 행위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체계가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적가족화 변인 중 인물상 사이의 거리, 선 구분, 성적 특성, 인물상의 행위수준,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변인을 통해 가족 적응을 평가할 수 있다.

2) 가족 위계질서

가족 위계질서는 인물상의 크기, 인물상의 높이, 인물상 사이의 거리를 통해 확인된다. 인물상의 크기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물상의 크기가 크고 높은 곳에 있는 인물상은 가족구성원 중에서 중요하며 영향을 미치는 인물(Klepsch & Logie, 1982; Reynolds, 1978)이다. Burns and Kaufman(1972)과 Schwartz(1981)는 가족화를 사용하여 인물상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나 지배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권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동적가족화에서의 부모상의 크기가 자기상의 크기를 비교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Bing(1970)은 협동 가족화(Conjoint Family Drawing; CFD)에서 인물상의

크기가 가족 위계질서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91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화 검사(Draw-A-Family test)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서 Deren(1975)은 권력에 대한 지각이 인물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인물상의 크기 변인은 가족구조 내에서 힘을 가진 인물상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Levinger and Gunner(1967)는 인물상의 높이가 관계에 대한 지배와 복종 또는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잘 기능하는 가족은 부부가 자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Canino & Canino, 1980) 자녀는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부모상과의 관계에 대한 동적가족화에서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는 연령에 적합한 자율성과 지도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 사이의 명확한 협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적가족화 변인 중 인물상의 크기, 인물상의 높이, 인물상 사이의 거리 변인을 통해 가족 위계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지역행정 구역상 광역시에 해당하는 모든 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13세~18세 사이의 청소년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50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 중 그림을 그리지 않거나 만화나 막대기 같은 그림을 그린 경우는 모두 제외하여 35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청소년기로 한정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문자 해독력이 있다하더라도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가족체계 진단 척도(Family System Diagnosis Scale; FSDS)

가족체계 진단 척도는 이미옥(2000)이 가족체계에 관한 Minuchi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는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전체적인 가족체계를 평가하는 2개의 요인(밀착·분리, 융통성·경직성)과 세대간의 경계를 평가하는 4개의 요인(부부협력·세대간 협력,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어머니-자녀 응집·소외, 아버지-자녀 응집·소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가족체계를 평가하는 '융통성·경직성' 요인과 세대간 경계를 평가하는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을 사용하였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 = 0.94$ 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 하위요인 중 '융통성·경직성' 요인의 $\alpha = 0.60$,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의 $\alpha = 0.66$ 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아주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각 하위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융통성이 있고, 부부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2)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

동적가족화 검사의 실시는 학급단위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자는 연구자와 미술치료사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56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30(36.5)	부모의 수입	100만원미만	94(9.6)
	여	226(63.5)		100~150만원미만	64(18.0)
출생순위	만아	144(40.4)		150~200만원미만	77(21.6)
	중간	41(11.5)		200~250만원미만	64(18.0)
	막내	139(39.1)		250~300만원미만	40(11.2)
	독자	32(9.0)		300~400만원미만	36(10.1)
종교	기독교	111(31.2)		400만원이상	41(11.5)
	천주교	39(10.9)			
	불교	84(23.6)			
아버지의 연령	무교	122(34.3)		어머니의 연령	40세미만
	40세미만	15(4.2)	40~50세미만		269(75.6)
	40~50세미만	294(82.6)	50세이상		10(2.8)
아버지의 직업	50세이상	47(13.2)	어머니의 직업	무직, 주부	207(58.1)
	무직	9(2.5)		농축산업	3(0.8)
	농축산업	6(1.7)		노무직	23(6.5)
	노무직	29(8.2)		판매서비스직	70(19.7)
	판매서비스직	101(28.4)		사무직	33(9.3)
아버지의 학력	사무직	98(27.5)	어머니의 학력	전문/관리직	20(5.6)
	전문/관리직	113(31.7)		초졸 이하	13(3.7)
	초졸 이하	9(2.5)		중졸	55(15.4)
	중졸	33(9.3)		고졸	205(57.6)
아버지의 학력	고졸	158(44.4)	어머니의 학력	전문대졸이상	83(23.3)
	전문대졸이상	156(43.8)			

였다. 미술치료사들이 실시할 경우는 사전에 실시의 주의점을 충분히 인식한 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적가족화 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A4용지(210×297mm), 연필(HB나 4B), 지우개를 준비한 후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한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막대기나 만화 같은 그림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세요”. 검사 실시 중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라고 대답해 주며,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듯한 응답은 검사자와 피험자간에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완성한 후, 그림 속에서 각각의 인물상이 누구인가, 연령,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용지의 여백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상세하지 않은 그림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기록의 산만을 방지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동적가족화를 가족체계에 맞춘 채점체계는 Osorio-Braña(1996)의 채점기준을 본 연구자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가족화의 채점기준을 가족 적응과 가족 위계질서에 맞추어 평가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요인별 변인에 대한 상세한 점수화 방법 및 채점기

준은 이미옥(2000)의 논문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채점하였다. 동적가족화에 대한 요인별 변인은 <표 2>와 같다.

가족체계와 동적가족화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동적가족화 변인증 선 구분 변인에 대한 점수를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동적가족화에 대한 채점에 있어서 채점자간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누구의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그림 20장을 3명의 평가자에게 독립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채점자는 동적가족화 채점방식에 대한 훈련을 받은 3명의 평정자이다. 결과에 의하면 평정자들 간의 상관계수는 A와 B사이의 상관계수는 0.888, A와 C사이의 상관계수는 0.880, B와 C사이의 상관계수는 0.910으로 나타나 평정자 간의 일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펜티엄 PC환경에서 통계 패키지인 윈도우용 SPSSWIN Version 7.5 Program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

<표 2> 동적가족화의 요인별 변인

요인명	변인	요인명	변인
가족적응	*아버지상과 어머니상 사이의 거리	가족 위계질서	아버지상의 크기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어머니상의 크기
	*어머니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자녀상의 크기
	선 구분		아버지상의 높이
	성적 특성(sexual characteristic)		어머니상의 높이
	아버지상의 행위 수준		자녀상의 높이
	어머니상의 행위 수준		*아버지상과 어머니상 사이의 거리
	자녀상의 행위 수준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어머니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아버지상의 중앙 배치	
		어머니상의 중앙 배치	
		자녀상의 중앙 배치	
		위치나 행동의 차이	
		성 차(gender differences)	

* 해석을 위해 반복된 변인

하였으며, 가족 하위체계 진단척도로서 동적가족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표 2 참조)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라 회귀모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선형회귀모형에 적용시켰다.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에 대해서는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남학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 남학생의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남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 중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beta = 0.616$)', '자녀상의 행위수준($\beta = 0.248$)'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 변인 중에서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변인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상의 행위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체계가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대표적인 예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은 가족체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의 변동을 약 37.6% 정도 설명해준다.

한편 종속변인인 가족체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을 융통성이 있는 가족 = 1, 경직된 가족 = 2로 나누고,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윌스 랏다(Wilk's λ)는 0.690, $\chi^2 = 15.006$ 그리고 근사 F 통계량은 0.866으로서 큰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가족과 경직된 가족 사이의 변동의 30.9%를 설명할 수 있다. 동적가족화 가족 적응 변인이 융통성이 있는 가족과 경직된 가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판별력은 74.5%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화된 판별함수의 계수는 판별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이 0.671로 가족체계의 융통성·경직성을 판별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자녀상의 행위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 분석에서 유의한 변인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표 3> 남학생의 융통성·경직성에 대한 가족 적응 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 인	B	표준오차	β	F값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1.993	0.394	0.616***	13.263***
자녀상의 행위수준 상 수	0.300	0.147	0.248*	
	7.505	1.395		
R ²			0.376	
Adjusted R ²			0.348	

***p< .001

〈표 4〉 남학생의 융통성·경직성에 대한 가족 적응 변인의 판별분석 결과

판별변인	비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아버지상과 어머니상 사이의 거리(DISDM)	-0.001	-0.055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DISDC)	0.009	0.440
어머니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DISM)	0.006	0.300
성적 특성(SEXCAR)	-0.011	-0.131
아버지상의 행위수준(ACTDAD)	-0.090	-0.182
어머니상의 행위수준(ACTMOM)	-0.195	-0.389
자녀상의 행위수준(ACTC)	0.202	0.404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LLIF)	0.974	0.671
선구분(COMPART)	-0.914	-0.383
상 수	-2.637	
집단 중심치		
융통성이 있는 가족(N=7)	0.540	
경직된 가족(N=14)	-0.795	
Wilk's Lamda	0.690	
χ^2	15.006	
Approximate F	0.866	
정준상관계수(CR)	0.556	
판별력(%)	74.5	

2) 융통성이 있는 가족과 경직된 가족에 대한 동적가족화 특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의 결과 경직된 가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융통성이 있는 가족에 있어서는 아들의 동적가족화에서 2개의 변인, 즉 자녀상의 행위수준과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통성이 있는 가족에 있어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특성은 〈표 5〉와 같다.

2.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위계질서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위계질서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동적가족화의 가족 위계질서 변인 〈표 2〉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라 회귀모

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선형회귀모형에 적용시켰다.

회귀분석의 결과 남학생에 대해서는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 여학생의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위계질서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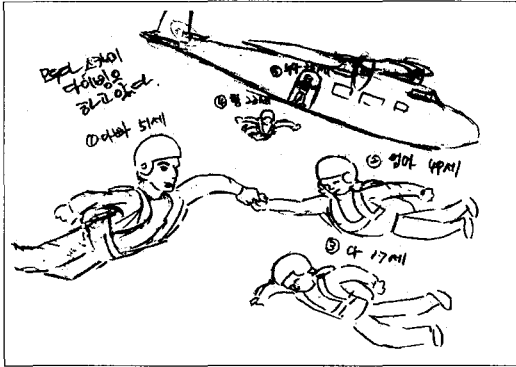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과 동적가족화의 가족 하위체계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동적가족화의 가족 하위체계 변인 중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beta = -0.256$)'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세대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대표적인 예는 〈그림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동적가족화 가족 적응 변인은 가족체

〈표 5〉 융통성이 있는 가족의 동적가족화 특성

가족체계 유형	KFD 그린 사람	동적가족화 특성
융통성이 있는 가족	아들	· 자녀상의 행위수준이 높다. ·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즐거운 표정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림 1〉 자녀상의 행위수준



〈그림 2〉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표 6〉 여학생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에 대한 가족 위계질서 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표준오차	β	F값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상수	-0.013 19.630	0.006 0.415	-0.256*	5.448*
R ²			0.065	
Adjusted R ²			0.053	

*p < .05

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의 변동을 약 6.5% 정도 설명해준다.

한편 종속변인인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을 부부협력 가족 = 1, 세대간 협력 가족 = 2로 나누고, 동적가족화 가족 하위체계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윌스 람다(Wilk's λ)는 0.803, $\chi^2 = 10.312$ 그리고 근사 F통계량은 1.445로서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판별함수에 의해서 부부협력 가족과 세대간 협력 가족 사이의 변동의 19.7%를 설명할 수 있다. 동적가족화 가족 하위체계 변인이 부부협력 가족과 세대간 협력 가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판별

력은 67.9%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화된 판별함수의 계수는 판별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변인이 -0.757로 가족체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을 판별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인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 부부협력 가족과 세대간 협력 가족에 대한 동적가족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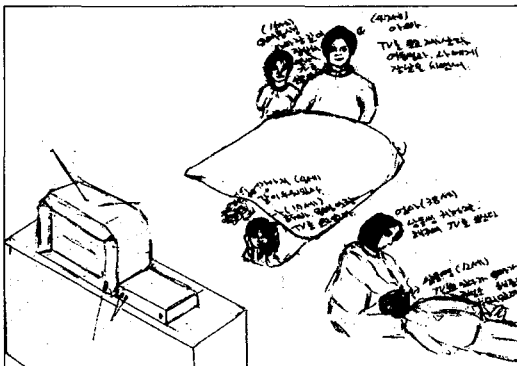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의 결과, 부부협력 가족과 세대간 협력 가족에 대한 동적가족화 특성은 〈표 8〉과 같다.

<표 7> 여학생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에 대한 가족 위계질서 변인의 판별분석 결과

판별변인	비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아버지상의 크기(SIZDAD)	0.011	0.373
어머니상의 크기(SIZMOM)	-0.006	-0.194
자녀상의 크기(SIZCHILD)	-0.012	-0.332
아버지상의 높이(VDISD)	0.009	0.304
어머니상의 높이(VDISM)	0.013	0.480
자녀상의 높이(VDISC)	0.003	0.114
아버지상과 어머니상 사이의 거리(DISDM)	-0.002	-0.102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DISDC)	-0.016	-0.757
어머니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DISMC)	0.000	0.015
아버지상의 중앙배치(CDISD)	0.002	0.129
어머니상의 중앙배치(CDISM)	0.000	-0.021
자녀상의 중앙배치(CDISC)	0.000	0.024
위치나 행동의 차이(DIFPOS)	0.418	0.418
성 차(DIFSEX)	0.530	0.139
상수	-4.157	
집단 중심치		
부부협력 가족(N=20)	0.653	
세대간 협력 가족(N=36)	-0.363	
Wilk's Lamda	0.803	
χ^2	10.312	
Approximate F	1.445	
정준상관계수(CR)	0.444	
판별력(%)	67.9	

<표 8> 부부협력 가족과 세대간 협력 가족의 동적가족화 특성

가족체계 유형	KFD 그림 상황	동적가족화 특성
세대간 협력 가족	딸	·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림 3> 아버지상과 자기상 사이의 거리

V. 논의 및 제언

동적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체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체계 진단척도의 유통성·경직성 요인,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과 가족 위계질서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동적가족화 변인 중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자녀상의 행위수준',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유통성·경직성 요인

과 관련된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변인은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자녀상의 행위수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그린 그림에서는 자기상의 행위수준이 높고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체계가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과 가족 적응이 관련이 있다는 Osorio-Braña(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족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융통성이 있는 가족의 그림은 변화하는 환경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권력구조, 가족역할, 가족규칙을 재조정하는 능력이 있다.

Minuchin(1974)은 청소년 자녀의 다양한 요구와 사춘기에 속해 있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융통성은 10대들이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Anderson & Henry, 1994).

동적가족화의 가족 적응 변인들이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융통성·경직성 요인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74.5%이었다. 그러므로 동적가족화에서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 자녀상의 행위수준 변인은 가족 적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과 관련된 동적가족화의 가족 위계질서 변인은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아버지상과 자녀상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세대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삼각관계, 부모-자녀 연합, 우회를 평가하기 위해 인물상 사이의 거리를 사용한 Schwartz(1981)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부협력은 부모가 가족체계 내에서 부모-자녀 연합이나 세대간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한 팀으로 가족구성원이 잘 기능하는 것이다. Minuchin(1974)은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부모가 갈등이 있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아이들을 중간에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대간 협력은 부모가 가족체계 내에서 삼각관계, 부모-자녀 연합, 우회를 형성하여 가족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삼각관계는 부모의 미해결된 갈등상황으로 자녀를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삼각관계를 형성한 가족의 그림에서는 정서적 거리(Horowitz et al., 1964)나 적개심(Britain, 1970)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각관계를 형성한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부모상이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며, 자녀는 부모 사이에 그려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부모-자녀 연합, 부모 중 한 사람과 한 자녀 사이의 밀착, 그리고 나머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거리는 가족화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Schwartz, 1981).

동적가족화의 가족 위계질서 변인들이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부부협력·세대간 협력 요인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은 67.9%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남학생이 그린 그림에서는 융통성/경직성의 가족적응에 대한 지각이 여학생이 그린 그림에서는 부부협력/세대간 협력의 가족 위계질서에 대한 지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가족적응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학생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가족 위계질서에 대한 지각에서는 여학생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가족구조에 있어서, 아버지는 가족이 처해 있는 외부의 여러 조건에 적응해 갈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상황 아래 가족의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남학생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가족적응에 대한 지각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는 가족구성원간의 응집력을 만들고 역할관계에서 발생한 정서적인 긴장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표현적 역할을 한다(서병숙, 1995). 이러한 표현적 역할을 하는 여성이 가정에서 남학생보다 더 많이 부부협력/세대간 협력에 정서적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위계질서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지각을 질문지 검사와 그림 검사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동적가족화는 부모와 자녀의 가족 역동에 대한 지각과 정서 그리고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정확하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방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척도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13세~18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한국 전체 가족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한국 전체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투사기법으로서의 동적가족화를 사용하여 가족지각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임상가의 관찰이나 1대 1의 면접을 통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타당성, 신뢰성이 입증된 자료이나, 한국에서 가족체계에 맞추어 동적가족화의 변인을 조정하여 채점체계를 적용한 연구는 처음이므로 한국의 문화에 맞는 채점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채점 기준설정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1993). 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특수교육.
- 김두현(1975). 현대의 가족. 서울: 을지문화사.
- 김미경(1987). 체계론적 가족치료이론의 비교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9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육과학사.
- 김효남(1984). 한국가족치료에 있어서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적용가능성. 숭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1989). 구조적 가족치료 활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은경(1986).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95). 결혼과 가정. 서울: 교문사.
- 송성자(1996).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범문사.
- 신순자(1996).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아동의 동작성 가족화검사 반응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최규련(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춘천: 도서출판 하우.
- 이미옥(2000). 가족체계 진단 척도로서의 동적가족화(KFD) 타당성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석(1994).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문(1995). 한국 목회가족상담에 있어서 S. Minuchin의 이론 적용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수(1993). 한국 빈곤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접근의 적용에 관한 연구: 미누친(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1997). 가족치료 총론. 서울: 도서출판 동인.
- 정채영(1999). 문제행동아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동작성 가족화 검사 반응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직(1986). 정신분열증환자의 가족치료에 있어서 Minuchin의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1979). 가족치료에 있어서 Minuchin과 Bowen이론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s, L. B. (1972). Introduction. In R. C. Burns and S. H. Kaufman. (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K-F-D)*. New York: Brunner/Mazel.
- Anderson, A. R., & Henry, C. S. (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behavio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Adolescence*, 29(44), 405-420.
- Bing, E. (1970). The conjoint family drawing. *Family Process*, 9, 173-194.

- Britain, S. D. (1970). Effect of manipulation of children's affect on their family drawing.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34, 234-237.
- Burns, R. C. (1982). *Self-growth in families, Kinetic Family Drawings(KFD)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Brunner/Mazel.
- Burns, R. C., & Kaufman, S. H. (1970). *Kinetic Family Drawing(K-F-D)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ildren through kinetic drawings*. New York: Brunner/Mazel.
- Burns, R. C., & Kaufman, S. H. (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 (K-F-D)*. New York: Brunner/Mazel.
- Canino, I., & Canino, G. (1980). Impact of stress on the Puerto Rican family : Treatment consideratio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0(3), 535-541.
- Cummings, J. A. (1980). An evaluation of objective scoring systems for kinetic family drawing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Gersten, J. C. (1978). *Kinetic family drawings*. In O. K. Buros(Ed.). *The eight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I. Highland Park, NJ : Gryphen Press.
- Deren, S. (1975).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draw-a-family tes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542-546.
- Di Leo, J. H. (1973). *Children's drawings as diagnostic aids*. New York: Brunner/Mazel.
- Harris, D. B. (1978). *Kinetic family drawings*. In O. K. Buros. (Ed.). *The eight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Vol. I. Highland Park, NJ : Gryphen Press.
- Horowitz, M. J., Duff, E. F., & Stratton, L. O. (1964). Body buffer zon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1, 651-656.
- Klepsch, J., & Logie, L. (1982). *Children draw and tell*. New York: Brunner/Mazel.
- Kwiatkowska, H. Y. (1967). Family art therapy. *Family Process*, 6, 37-55.
- Kwiatkowska, H. Y. (1978). *Family therapy and evolution through art*.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 Ledesma. L. K. (1979). The kinetic family drawings. of Filipino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Microfilms.
- Levinger, G., & Gunner, J. (1967). The interpersonal felt grid : I felt and tape techniques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relationships. *PsychonoSci*, 8, 173-174.
- McGregor, J. P. (1978). Kinetic family drawing test : A validity test : A validity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 McPhee, I. P. (1975). Empirical evaluation of kinetic-family-drawing(KFD) styles as a detector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hood behavior. Boston College. 132.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Mostkoff, K. L. & Lazarus, P. J. (1983). The kinetic family drawing : The reliability of an objective scoring system. *Psychology in the Schools*, 20, 16-20.
- O'Brien, R. P., & Patton, W. F. (1974). Development of an objective scoring method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156-164.
- Osorio-Braña, J. (1996). The kinetic family drawing as a measure of Minuchin's structural family concepts among Hispanic American Families with substance-abusing and nonsubstance-abusing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Reynolds, C. R. (1978). A quick scoring guide to the

- interpretation of children's kinetic family drawing (K-F-D). *Psychology in the Schools*, 15, 489-492.
- Schwartz, E. E. (1981). The kinetic family drawing as a family assessment measure.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College.
- Sobel, H., & Sobel, W. (1976). Discriminating adolescent male delinquents through the use of kinetic family draw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91-94.
- Stawar, T. L. & Stawar, D. E. (1987). kinetic family drawing as a screening instrument. *Perceptual Motor Skills*, 65, 810.
- Thompson, L. (1975). Kinetic family drawing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6(6-B): 3077-3078. (University Microfilms No. 75-29, 095).

(2003년 9월 26일 접수, 2004년 3월 31일 채택)